

농촌기본소득 유치 ‘범군민 포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

순창군, 군민·지역대표·행정 모두 한뜻 모아 유치 염원

순창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점을 위해 군민·지역대표·행정 모두 한뜻을 모아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미래발전협의회(회장 서한복)는 지난 19일 일품공원 야외광장에서 농촌기본소득 순창군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해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포럼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연천군 사례발표, 종합토론, 농촌기본소득 유치 촉구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방향, 그리고 순창군이 준비해 온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순창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전국 농촌의 모델이자 국가적 정책 실험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



순창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일품공원 야외광장에서 농촌기본소득 순창군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포럼’을 개최했다.

졌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 실험을 위해 군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군민이 참여하는 실행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만큼, 이번 공모 선정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제

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미래를 살리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순창군이 시범사업 최적지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남원이 설립 최적지” 성명서 발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 시설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치안 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중대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경찰 인재 양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 교육 인프라는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등 주요 기관이 충청권에 편중되어 있어 이로 인해 다른 지역 경찰관들은 교육 접근성에서 소외감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경찰 조직의 동반 성장을 저해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문 인재 양성에도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교육 거점을 마련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회의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9일 전북 남원시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세미나를 통해 남원 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남원이아말로 제2중앙경찰학교의 최적지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원은 영호남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로, 충청권에 집중된 경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국가 예산 절감과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셋째, 우수한 접근성과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원시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경찰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약속, 이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성명서 말미에 협의회는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는 단순한 교육 시설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혁신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인 것으로, 이 과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전통시장 ‘맛잇길 음식상가’ 준공

임실군이 지난 19일 임실전통시장 맛잇길 음식상가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양주영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박정규 도의원, 지역사회단체장, 임실시장상인회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음식상가는 국비 및 도비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임실을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연면적 796㎡의 지상 1층 규모로, 음식점 6개소, 공영화장실, 옥상주차장 15면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치즈테마파크나 옥정호 등 임실군을 내방하는 관광객의 증가나 35사단 군 장병들의 일몰 휴가제로 소비 성향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3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6월 공사를 완료했다.

임점 품목으로는 임실 대표 상품인 치즈(유제품)와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거트 속살 슷불구이(요제지), 윤반면



에 있는 불어섬을 형상화한 임실치즈 불어빵(불어섬 불어빵), 간편하게 데워먹을 수 있는 치즈스모크 바베큐(세모네도), 흑염소탕(임실흑염소탕 원조집), 한우 시래기육개장(덕자네), 임실치즈 만두(임실식당) 총 6개이다.

현재 5곳 음식상가(요제지, 불어섬 불어빵, 세모네도, 임실흑염소탕 원조집, 덕자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1곳(임실식당)도 준공식 이후 내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음식상가 조성이 임실시장 및 인근 상점가와의 상생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서 ‘임실 방문의 해’ 홍보

임실군이 ‘2025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 로컬페스타’에서 전국에 임실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5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 로컬 페스타에서 2025 임실 방문의 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GSCO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캠핑카 및 카라반 유치 초청 오토캠핑 행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관광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함께 운영하는 로컬 관광 Zone이 마련됐다.

78개 사 257개 부스가 운영되어, 레



저·캠핑용품 전시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임실군은 빼어난 관광자원과 여행지를 국내외 기관·단체에 소개하고, 지역 문화 관광의 매력을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실의 숨겨진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군은 로컬 관광존 내 임실 방문의 해 홍보부스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프로그램북 배부 활동을 펼쳤다.

특히, SNS 친구 추가 방문객 대상 추첨식 SNS 친구 추가 방문객 대상 추첨식 이벤트를 통해 임실군 공식 SNS 홍보도 함께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홍보도 함께 추진했으며,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경우 20% 할인된 가격으로 대한민국 명품 치즈인 임실치즈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추석 명절맞이 이웃돕기 캠페인 전개

남원시가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추석 명절맞이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웃돕기 캠페인은 22일부터 10

월 2일까지 총 11일간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분청 및 각 부서, 읍면동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남원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중위소득 100% 이내의 저소득 가구 166세대에 가구당 10만 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한돈협회에서는 지역의 저소득 세대를 위해 총 140kg(2kg, 70박스)의 돼지갈비를 기부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어민공익수당 26일까지 지급

남원시는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어민공익수당)’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환경 보전 등 어업인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급액은 어업경영체 기준 1인 경영체는 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업인으로, 현장지원과를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실습 중심 귀농귀촌 실용교육 진행

순창군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2025년 순창군 귀농귀촌 실용교육’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농촌 정착을 꿈꾸는 귀농인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자격증(9월 11일~10월 13일) △농촌 생활기술 실습(9월 15일~17일) △농기계 안전 및 기초 실습(9월 18일~19일) △AI 농촌 마케팅(9월 30일~10월 1일) 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